

2008년 12월 22일 월 말씀

운동 많이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 합니다. 나도 운동을 엄청나게 안 하면 힘들어서 쓰러 집니다. 20대부터 해왔기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 하면 안 됩니다.

밖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을 때는 밤잠 못자고 낮에는 아시아권나라 말씀 전하고 밤에는 유럽권 나라 말씀전하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 나라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잠을 거의 못자 피곤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잠을 자니까 좀 덜 피곤합니다. 우리 교인들 없는 곳은 교회도 만들면서 다니고 했더니 세계 순회 한 번 하면서 한 바퀴 도는데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여수에 한 번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몇 명 없었을 때 갔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같이 나올 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으면서 관광 못가서 서운한 것, 밥 한끼 안 먹어서 서운한 것 그 정도 서운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월남 가기 전에 특수훈련을 양평에서 받았습니다. 유격훈련 줄타기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양평은 대학교가 없으니 중고등부만 있어도 큰 것입니다. 중고등부가 크면 대학생이 되니까 중고등부나 대학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정성스럽게 잘 살펴야합니다. 정말 한 명을 천명 같이 보면서 할 때 붙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붙어납니다.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주십시오. 매일 신경 써야 합니다. 사고 날까 신경써주고 차조심도 시켜주고 계속 가르쳐줘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신앙만 넣어주면 안 됩니다. 육신이 죽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부분도 잘 살펴주면서 해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사회로 가서 빠지는 것을 예수님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죽었다 하고 또 믿으면 부활 되었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창조무대 연극하는 사람들도 신앙을 확실히 깊이 넣어줘야 합니다. 신앙 예술이지 예술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에 애들이 장터에 모여들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물건 사가는 사람이 몇 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물건을 팔려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청주는 교육도시라 그런지 중고등부가 많이 있습니다. 잘 좀 해서 중고등부를 길러봐야 합니다. 중고등부를 길러봐야 대학부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깁니다. 나는 원래 주일학교 학생들 지도하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주

일학생들 다루는 것을 통해서 목회에 대해 안 것입니다. 사람들 심리는 거의 같습니다. 흐르는 물결은 큰물이나 작은 물이나 흘러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 않고는 못합니다. 청주도 교회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들은 중고등부가 굉장히 귀한 부서이니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여러 수백 개, 수천 개의 고통을 받고 가는 것에 대해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야속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늘은 이론 교육이 없습니다. 실천 교육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는 사람에게 이론 교육은 안 시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적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총을 쏘게 만드는 실천 교육을 꼭 시킵니다. 실존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실존으로 가기 때문에 이론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애들도 잘 가르쳐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그 때 그 나이에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하면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 때를 잘 생각하면서 교육하면 딱 맞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쓴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 다닙니다.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동서남북으로 찾으려 다닙니다. 그런데 행복을 모르고 찾고 돌아다닙니다. 행복은 큰 것만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기 쉽습니다. 물 한 컵도 행복입니다. 목마를 때는 물 한 컵도 행복입니다. 행복은 작은 행복을 누려야 큰 행복도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찾고 다니는데 행복은 바로 '자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가르쳐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옛날부터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행복입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행복이 있고 하늘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만들어서 써봐야 귀한 행복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런 것이 행복입니다. 거기서 한 마디 더하면 깊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한 마디씩 나에게 느껴오고 여러분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시도 내고 글도 쓰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큰 것만 생각합니다. 남의 행복이 자기에게 좋겠습니까? 다 자기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분복 대로 준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은 안 맞습니다. 남은 쓴 나물 좋아하는데 자기는 단 나물 좋아하면 안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큰 집에서 요리 잘 해서 먹고 산다고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개성대로의 행복입니다.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막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막 웃고 살자고 방향이 돌아갑니다. 웃으면 행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행복해야 웃는다고 하는데 먼저 자기가 웃어도 행복인 것입니다. 분복대로 해야 합니다.